

궁정식 사랑의 노래: 유혹의 언어

박윤희 (동국대)

중세 이후 서구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 궁정식 사랑(Courtly Love)은 우연히 ‘첫눈’에 반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하는 태도로 끝없는 사랑을 보이는 남자와 도도하면서도 냉정한(cruel) 귀부인(lady)과의 관계를 다룬다. 비록 오늘날 궁정식 사랑의 실체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세 이후 특히 서양연가의 전통에서 보았을 때 이 개념은 가장 중요하며 가장 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궁정식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중세와 르네상스 사랑 시에서 보여지는 남성 화자에 의한 일방적인 ‘사랑의 게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전통적인 이분법적 여성 이미지—이브(Eve) & 마리아(Mary)—의 굴레 속에서 영시 연가 속에 재현된 여성의 정체성이 연가의 표면에 표현된 대로의 이상적인 ‘선녀’의 모습 그대로인지 또는 표면의 ‘여성숭배’는 언어의 마력에 의해 화려하게 포장된 걸치장에 불과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정식 사랑은 3가지 독특한 특색을 가지는데, 첫 째, 고결하게 만드는 사랑

의 힘, 둘 째, 귀부인의 우월적인 위치, 그리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사랑과 영원히 증가하는 욕망 등이다 (Denomy 20). 궁정식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은 연인들을 품위 있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인을 존중하게 하며, 열정의 욕망을 끝없이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다. 발렌시(Maurice Valency) 또한 궁정식 사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여성 숭배”와 “사랑을 통해 고결한 품성을 갖게 되는 남자”를 들고 있다 (Valency 37).

이와는 달리 루이스(C. S. Lewis)는 『사랑의 우화』(*The Allegory of Love*)에서 궁정식 사랑을 ‘간통(adultery)’과 긴밀하게 연결 지어 파악하고 있다(13). 즉 결혼한 부부 간에는 진정한 ‘사랑’이 성립될 수 없다는 안드레아스 카펠라누스(Andreas Capellanus)의 다음과 같은 말에 루이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랑은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힘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 굳게 성립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강제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하지 않고 연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반면에 기혼자들은 각기의 [성적] 욕망에 의무로서 응해야 하며 무엇이든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Andreas 106-107)

안드레아스가 말하는 부부 간의 의무적인 사랑은 사도 바울(St. Paul)이 말한 “결혼의 빚(marital debt)”(*I Corinthians* 7: 3-4)에 근거한다. 배우자의 성적 행위의 요구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랑은 부부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정적인 궁정식 사랑은 ‘간통’을 전제로 하는 혼외의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중세 서정시인들(troubadour)과 현대 비평가들은 ‘간통’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특히 남자)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궁정식 사랑의 현저한 특색으로 보고 있다. 중세 프랑스 서정시인인 Guillem Montanhagol은 사랑의 긍정적인 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으로, 연인들은 온 마음으로 사랑을 섬겨야 한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 사

악한 이를 선하게, 선한 이를 더 낱게 하고 매일 좋은 일을 하는 길로 이르게 하는 미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자비가 나온다. 진정으로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준 사람은 누구나 그 후에 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Valency 183; 재인용)

비록 ‘true’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이는 곧 “진정한 연인은 탐욕에 타락하지 않고, 사랑은 추악하며 교양이 없는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고, 비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고결함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며, 심지어는 오만한 사람에게 겸손을 빌려 줄 수도 있다. 사랑이란 이처럼 놀라운 것이다” (Andreas 31-32) 라는 안드레아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궁정식 사랑의 지도서(manual)라 할 수 있는 안드레아스의 『궁정식 사랑의 기술』(*The Art of Courtly Love; De Amores*)은 Book I과 Book II에서 보여준 남녀 간 사랑의 긍정적인 미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Book III에서 여자들은 진실한 사랑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비난하며, 이로 인해 궁정식 사랑이 성립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여성들에게서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공동의 사랑을 당신은 찾을 수 없다. 그 어떤 여자도 한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의 공동의 유대 속에서 한 남자에 매어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Andreas 200)

종교적,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 금기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궁정식 사랑의 불륜적인 면은 결국 성직자인 안드레아스로 하여금 Book III(“The Rejection of Love”)에서 자신이 피력했던 사랑의 규범들을 철회하게 만든다. 더욱이 양성 사이에 진실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이의제기를 정당화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여성혐오, 즉 여자들은 속이기 잘 하고(deceitful) 신의가 없다(faithless)는 그릇된 믿음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여성주의 시각은 안드레아스의 저술이 중세와 그 이후 사랑의 담론에 끼쳤을 중대한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궁정식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 사랑시의 실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로 남성작가에 의해 씌어진 중세와 르네상스시대 서양연가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속에 전개되는 사랑이 쌍방 간의 상호교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진 남성 화자의 입장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주체(subject)인 남성화자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품은 짝/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자신의 애티는 마음만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 여인은 단순히 하나의 객체(object)로 남게 된다. 따라서 시속의 여성은 남성 화자의 상상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상화되어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의 심리상태에 따라 증오나 찬탄의 대상으로 변화무쌍하게 그려지며, 이 ‘사랑의 게임’에서 여성은 단순히 남성화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한정된다. 이를 클레어(Janet Clare)는 “부재의 존재 (an absent presence)” (44)라고 정의한다. 시 속의 주된 주제는 여자이지만 정작 그 여자는 그림 속의 ‘꽃’처럼 그 의미가 보는 이의 주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사무엘 다니엘(Samuel Daniel)의 다음 소네트는 전형적인 궁정식 사랑을 담은 시로서 일방적인 여성의 ‘객관화’가 잘 나타난 예이다. ‘담즙’과 ‘별꿀’ 등의 극명한 예를 들어 ‘델리아(Delia)’라는 한 ‘레이디(lady)’의 아름다움(‘fair’)과 매정함(‘cruel’)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정숙함(‘chaste’)까지 찬미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만큼 매정하다.
 비록 그녀의 눈은 화사하지만, 눈썹은 찌푸리고 있다.
 비록 그녀의 오만함은 절망적이지만 미소는 찬란하다.
 그리고 그녀의 호의는 달콤하지만 그녀의 경멸은 쓰디쓰다.
 수줍은 듯한 영예로 장식한 정숙한 아가씨,
 그녀의 발걸음은 젊음과 사랑의 푸르른 길을 밟는다.
 그녀를 우러러보는 모든 눈들에 있어서의 경이로움,
 천국에서의 성인으로 계획된 지상의 신성한 존재.
 서로에게 치명적인 적이었던 정숙함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눈썹에서 화해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둘에 연민을 결합시켰더라면
 지금 내가 털어놓는 이 한탄을 누가 들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아름답지 않고 따라서 몰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뮤즈 신은 잠을 자고 그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터이니.

Fair is my Love and cruel as she's fair;
 Her brow-shades frown, although her eyes are sunny.
 Her smiles are lightning, though her pride despair,
 And her disdains are gall, her favours honey:
 A modest maid, deck'd with a blush of honour,
 Whose feet do tread green paths of youth and love;
 The wonder of all eyes that look upon her,
 Sacred on earth, design'd a Saint above.
 Chastity and Beauty, which were deadly foes,
 Live reconciled friends within her brow;
 And had she Pity to conjoin with those,
 Then who had heard the plaints I utter now?
 For had she not been fair, and thus unkind,
 My Muse had slept, and none had known my mind. (From *Delia*, Sonnet VI)

이 소네트의 마지막 2행 연구(couplet)에서 화자는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다 같이 지닌 그녀가 몰인정('unkind')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시를 쓸 수 있겠나면서 자신이 시를 쓰는 이유와 그 사랑의 고통을 시로 승화시키는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드러나듯이 화자가 사랑에 빠진 이유는 모든 이들이 감탄해 마지않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정숙함 때문이다. 비록 'Sacred,' 'Saint' 등 정신적 연애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시어(diction)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시어는 그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냉정함을 묘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남성 시인들에 의해 씌어진 중세와 르네상스시대 절대 다수의 서양 연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육체적 욕망이 그 저변에 잠복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드레아스는 일찍이 사랑의 감정이란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seeing') 순간 마음속에 품어('conceiving') 발생한 [육체적] 욕망('desire')의 발로라고 정의한다.

사랑이란 서로 다른 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 대한 무절제한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타고난 고통이다. 오로지 상대방을 껴안아보고 싶은 욕망만이 지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사랑의 모든 가르침을 시도하는 것이다. (Andreas 28)

이처럼 안드레아스에 의해 정의된 사랑은 정신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육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사랑이란 아름다운 여인을 눈으로 보는 순간 마음에서 그녀에 대한 욕정으로 변하며 맹목적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심한 내적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이다.

한 남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어떤 여자를 볼 때 그녀에 대한 욕망이 갑작스레 생기게 된다. 그 후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에 불타게 되고 마침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 곧 그는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녀의 몸을 분화시키며, 그녀가 무엇을 하는 지를 생각하고 비밀스런 그녀의 몸매를 엿보고, 그리고 이 생각 하나하나를 극대화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 후 그는 이 완전한 명상에 이르게 되는데, 사랑이 그 지배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즉각 행동에 돌입한다.... (Andreas 29)

사실상 여자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전형적인 ‘이브’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을 파괴하는 감각적인 것으로 눈을 통해 들어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히 위험한 요소다. 초서(Geoffrey Chaucer)의 다음 시는 한 여인의 뇌쇄적인 눈에 의해 갑작스레 사랑에 빠진 한 남성 화자의 고통을 담고 있다.

그대의 두 눈이 불시에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두 눈의 아름다움을 견딜 수 없어
 나의 열망하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그대가 말로써 고쳐주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상처를, 그 상처가 갓 생겼을 때—
 맹세컨대, 나는 그대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삶과 죽음의 여왕이시고
 나의 임종의 유언에서 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Your two eyes will slay me suddenly,
 I cannot endure their beauty,
 So deeply does it wound my eager heart.
 And unless your word will heal, without delay,
 My heart's wound while it is new—
 On my oath, I tell you faithfully
 That you're the queen of my life and death,
 And in my dying will that truth be seen. (“A Rondel of Merciless Beauty”)

아름다운 여인의 눈을 통해 사랑에 빠진다는 전형적인 궁정식 사랑의 패턴을 보여주는 이 시는 눈을 통해 마음에 품은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부재의 존재”로서 이 시의 여인은 남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자신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짝사랑의 대상으로 되어버리고, 상호 교류도 없이 죽음으로서라도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이 남자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하여 이 여인은 결국 ‘무정한 미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칭호를 받게 된 것이다.

물론 단테(Alighieri Dante)의 소네트에서와 같이 성모마리아 여성관을 바탕으로 하는 연가는 여자의 눈을 통해 전파되는 사랑의 힘은 보는 이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한다고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힘을 찬양하기도 한다.

나의 레이디는 그녀의 두 눈에 사랑을 담고 다닌다.
 그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보다 유쾌하게 되어 진다.
 그녀가 가는 길에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응시한다.
 그녀의 인사를 받은 남자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되고,
 한숨 가득, 그의 고통에 쌓인 얼굴은 의기소침해 지고
 그러면 그의 사악한 마음은 깨닫게 된다.

.....
 조금뿐이더라도,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형언할 수 없으며 마음속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이것이 바로 새로우면서도 은혜로운 기적이다.

My lady carries love within her eyes;
 All that she looks on is made pleasanter;
 Upon her path men turn to gaze at her;
 He whom she greeteth feels his heart to rise,
 And droops his troubled visage, full of sighs,
 And of his evil heart is then aware:

.....
 The look she hath when she a little smiles
 Cannot be said, nor holden in the thought;
 'Tis such a new and gracious miracle. ("My Lady")

사랑은 여인의 눈으로부터 나온다는 전통적인 ‘눈 토포스(eye topos)’를 기반으로 하여,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품게 되는 사랑이 남자들의 사악한 마음을 순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는 사랑과 미인의 긍정적인 힘을 부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연가의 대부분은 마리아보다는 이브 이미지를 강조하는 반여성주의적, 나아가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여성의 부정적인 속성들—유혹, 변절, 배신 등—을 기반으로 하여 그 뇌쇄적인 아름다움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들이 절대 다수이다. 스스로 자초한 일방적인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진부한 여성의 부정적 속성에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랑의 덧없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렇듯 남성 중심 서양연가의 전통에서 객체 또는 대상으로서 남성 시인들에 의해 이브-마리아의 이분법적인 이미지 사이에서 그 극단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여성들도 과연 이 ‘사랑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참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쓴 사랑 시에도 남성작가들에 의해 주도된 주류 사랑 시에서 보이는 유사한 사랑의 양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기원전 600년경의 고대 그리스 여류 시인인 사포(Sappho)는 사랑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고도 없이
회오리바람처럼
오크나무를 덮치는,
사랑은 그렇게 내 마음을 뒤흔든다.

Without warning
as a whirlwind
swoops on an oak
Love shakes my heart

사랑을 갑작스레 나무에 몰아치는 회오리바람에 비유함으로써 사랑의 의외성을 이 시에서 강조하였고, 또 다른 시에서는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뱀의 독에 마비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달콤씹쓸한(bittersweet) 사랑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여성도 남몰래 사랑하는 이와 마주하면 소위 남성 연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사랑의 증상들을 느낄 수도 있음을 사포는 보여준다.

. . . . 만약에 내가
당신과 맞닥친다면
말문이 꼭 막힐 거예요;
얼굴엔 열은 홍조가 일고;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채,
오로지 심장의 고동소리만 들으며,
난 그렇게 땀에 흠뻑 젖어 있을 거예요;
몸은 사시나무 떨듯하며,
그리고 창백해질 거예요,
마른 풀보다 더. 그럴 때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은 듯합니다.

. . . . If I meet

you suddenly, I can't
 speak—my tongue is broken;
 a thin flame runs under
 my skin; seeing nothing,
 hearing only my own ears
 drumming, I drip with sweat;
 trembling shakes my body
 and I turn paler than
 dry grass. At such times
 death isn't far from me...

이 시에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레 만났을 때의 당황해하는 화자의 모습이 궁정식 사랑의 연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상사병의 여러 증상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얼굴이 빨개진 후, 말문이 막히고, 앞이 캄캄해지며, 그러다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리면서 백지장처럼 안색이 창백해지고, 마치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사병의 증상들이 잘 나타나 있다. 결과적으로 여류시인 사포의 시 또한 중세와 르네상스 남성 시인들의 시와 비슷하게 사랑에 빠진 이의 마음을 솔직히 묘사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다만 남성 시인들과의 차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야 상대방 성을 근거 없이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포의 시에서 엿볼 수 있는 자기 고백적인 이러한 사랑시의 특징은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몇몇 여류시인들의 시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로쓰(Lady Mary Wroth), 휘트니(Isabel Whitney), 카벤디쉬(Margaret Cavendish), 필립스(Katherine Fowler Philips), 벤(Aphra Behn), 그리고 핀치(Anne Finch) 등 여류 시인들의 서정시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들은 전통적인 궁정식 사랑 시의 여러 패턴과 속성들을 따르면서도 남성 시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사랑의 양태를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즉 이들 여류 시인들의 서정시에는 여성으로서의 솔직한 자기표현, 남자를 조심하라는 뜻 여성들에 대한 경고, 상대방 연인에 대한 맹목적이며 극히 이상화된 자기표현의 절제, 그리고 사랑에 있어 지조(constancy)의 문제 등이 부각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로쓰의 장편산문로망스 『몽고메리 백작부인의 유라니아』(*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와 소네트 연작집(sonnet sequence) 『팜필리아로부터 암피란투스에게』(*From Phamphilia to Amphilantus*)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중적 사랑을 즐기는 암피란투스(“dual-affections”)의 배신과 이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써 지조를 지키는 정숙한 팜필리아(“All-loving”)의 질책과 변명을 소네트 형식으로 표현한다. 로쓰는 비록 페트라르크(Petrarch) 풍의 전통적인 비유와 수사법 등을 사용하였지만 (“In writing in the Petrarchan mode, Mary Wroth was following paths that were (to put it mildly) heavily trodden”) (Waller 195), 여느 남성시인의 사랑 시와는 달리 그 다루는 주제와 내용면에 있어 여성 시인으로서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애인에게 구애하거나 동경하는 대상의 외적인 매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여성시인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사랑과 욕망과 상실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의 시학을 위해 로쓰는 표준적인 비유법을 수정하고 다시 쓴다. (Clare 47)

즉, 남성 시인들이 한 특정 인물에 대한 페트라르크 풍의 화려한 외적 묘사나 눈물겨운 사랑의 갈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로쓰의 소네트는 사랑에 빠진 한 여류시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내적인 사랑의 드라마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사랑의 어두침침한 마력에 저항할 수 없는가?
 사랑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우리는 노예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 거처를 제공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 난 달아나겠다,
 그대의 유치한 장난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자유를 공언한다.
 그러나 아, 이쁨은 나의 잃어버린 마음이 고백하게 만든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여, 자유여 안녕.

Why should we not Loves purblind charms resist?
 Must we be servile, doing what he list?

No, seeke some host to harbour thee: I flye
 Thy Babish tricks, and freedome doe professe;
 But O, my hurt makes my lost heart confesse:
 I love, and must; so farewell liberty. (Sonnet 14)

유치한 사랑의 트릭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다.

클레어의 견해와 비슷하게 베어(R. S. Bear) 또한 팜필리아가 사모하는 암피란투스는 남성 시인들의 소네트에서와는 달리 시가 집중하는 대상(object)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로쓰의 소네트 연작시는 공히 남성과 여성 연인들의 “지조(constancy)”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힌다.

소네트 연작집, 『팜필리아로부터 암피란투스에게』는 『몽고메리 백작 부인의 유라니아』와 함께 암피란투스를 배신의 길로부터 돌리게 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며 지조는 성(gender)에 특유한 덕목이 아니다 라는 단 하나의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암피란투스를 배신의 길로부터 돌리게 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자동적으로 궁정풍 사랑 시의 페트라르크 전통을 전도시킨다. 왜냐하면 소네트 연작집들이 시를 바치는 대상인 스텔라, 셸리카, 필리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여성인물들과는 달리 암피란투스는 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압제적인 권력관계를 형성시킨 방식인 객관화를 포기한 그 위에 바탕을 두고 서로에 의해 지지된 행복을 찾아나서는 팜필리아를 보조하기 위한 역할을 암피란투스가 맡고 있는 것이다. (Bear, “Introduction”)

로쓰의 연작시는 암피란투스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주류를 이루기보다는 사랑에 있어서 “지조”의 문제는 특정한 성(gender)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해당되며 진정한 사랑은 “지조”를 지키려는 그 인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에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로쓰의 소네트는 화려한 수사와 현란한 비유법, 그리고 지나친 감상으로 점철된 남성 시인들의 사랑 시와는 달리, 어쩌다 사랑에 빠져 갈등하고 고민하며,

또한 동시에 사랑의 희열을 느끼는 한 보편적인 인간의 진솔한 내면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로쓰의 소네트는 사포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불가항력과 그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어찌할 수 없는 소박하면서도 나약한 ‘인간’의 적나라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얼마나 사랑이 불처럼 내 안에서 타오르는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사랑은 더욱더 강해진다.

.....
나의 두 눈은 그 불길을 견뎌낼 수 없지만, 나의 심장은
그 불길에 기대한다, 나의 사랑의 열정을 알릴 수 있기를,
번민과 수심으로 가득 쌓인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막힌 듯이 나는 조금도 숨을 들이쉴 수 없다.
사랑의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는 불길의 연료 때문에.
그러나 나는 사랑하리라, 한 줌 타고 남은 재가 될 때까지.

How like a fire doth Love increase in me?
The longer that it lasts the stronger still;

.....
Mine eyes can scarce sustaine the flames, my heart
Doth trust in them my passions to impart,
And languishingly strive to shew my love.
My breath not able is to breath least part
Of that increasing fuell of my smart;
Yet love I will, till I but ashes prove. (Sonnet 48)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타오르는 맹렬한 사랑의 불길을 감당하지 못한 채 화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토로하지만 결국 자신은 비록 그 불길로 인해 재가 된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팜필리아는 고백하고 있다.

로쓰의 시가 사랑에 빠진 여성 화자의 마음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면, 휘트니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성 연인들의 거짓 맹세와 배신, 나아가 못 여성들에게 이러한 상투적인 수법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한다. 편지 형식으로 된 “I. W. 자신의 지조 없는 애인에게 (I. W. To her Unconstant Lover)”에서 휘트니는 전 남자 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전형적인 정숙한 여인처럼 그가 결혼하여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한다.

당신의 결혼을 아주 비밀리에 했더군요.
 지금 그 사실을 들었어요.
 이전에 내게 말했었어야 했지만 서도요.
 무엇이 사랑의 맹세를 반복케 했나요?

알다시피, 난 항상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래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요.
 그러나 당신이 남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부인을 기원해요.

As close as you your wedding kept,
 yet now the truth I hear,
 Which you (ere now) might me have told—
 what need you nay to swear?

You know I always wisht you well,
 so will I during life:
 But sith you shall a husband be,
 God send you a good wife. (1-8)

그러나 휘트니는 곧바로 전 남자 애인이 굳건하게 다짐했던 사랑의 맹세를 상기시키면서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독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당신이 만족할 수 없다면?

.....

그러면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리하면 당신이 굳게 했던

그 서약들이 지켜질 것 이에요.

자, 이제 결정하세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트로이의 시논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를.

And if you cannot be content
to lead a single life?

.....

then take me to your wife.

So shall the promises be kept
that you so firmly made:

Now choose whether ye will be true,
or be of Sinon's trade. (21-27)

휘트니는 이 남자에게 그리스의 첩자로서 트로이를 배신한 시논(Sinon)과 같은 사랑의 배신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결혼하여 변함없는 지조의 상징으로서 사랑의 사표가 될 것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어 지조와 사랑의 맹세 등에 대한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특히 여자를 버린 수많은 남자 영웅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자신과의 관계에서 언행이 불일치한 그의 과거와 지금의 행적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비난한다. 결국 역사나 신화 속의 영웅들이 자신의 여자를 배신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휘트니는 반문하고 있다.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그들은
영원한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명성? 무엇 때문에 이 용어를 썼을까?
차라리 치욕이라고 불렀어야만 했는데.

For they, for their unfaithfulness,
did get perpetual fame:
Fame? wherefore did I term it so?
I should have called it shame. (69-72)

역사나 신화 속의 영웅들은 과업(mission)을 이루는데 있어 이러한 배신은 용서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지만(“Although they that commit the same / think it a venial crime”)(67-68), 이는 훌륭한 명성이 아니라 치욕의 명성으로서 인류에 회자되는 것이라고 휘트니는 반박한다. 그녀가 바라는 남자의 모습은 자신의 여자를 버린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비록 자신을 배신했지만 결코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녀 때문에 죽는 트로이루스가 되어 주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테세우스도, 이아손도 아닙니다.
그리고 파리스도요,
트로이에 파멸을 불러일으켰던,
그리스의 침범을 통해.

내게는 트로이루스가 되어 주세요.
만약에 비교하고 싶지 않다면,
위에 명시된 인물들 중의
그 누구와도.

Let Theseus be, let Jason pass,
let Paris also scape
That brought destruction unto Troy
all through the Grecian rape,

And unto me a Troylus be,
 if not you may compare
 With any of these persons that
 aboue expressed are. (73-80)

훗날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지조를 지키는 트로이루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남자에게 설득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라면 휘트니는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81-88). 그리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을 배신한 남자에게 결혼을 하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라는 당부를 한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때에,
 편지를 잘 간직하고 계세요.
 이 편지를 보낸 바로 그녀가 맹세했으니까요,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자 이제 작별을 고할 차례네요,
 여기 내 마음을 자세히 표현했으니까요.
 이 시집 안의 다른 시들을 잘 읽어보면
 나의 생각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And when you shall this letter have,
 let it be kept in store,
 For she that sent the same hath sworn
 as yet to send no more.

And now farewell, for why at large
 my mind is here exprest,
 The which you may perceive if that
 you do peruse the rest. (137-140)

결국 이 시는 변심한 애인을 설득하는 동시에 다른 여자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교화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방식이나 어조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하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한숨, 애원, 한탄, 유혹과 협박을 곁들인 호소 등의 페트라르크 풍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기존 남성 시인들과의 시와는 크게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모든 젊은 숙녀와 사랑에 빠진 다른 모든 미혼여성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충고 (The Admonition by the Author to all Young Gentlewomen: And to all other Maids being in Love)”에서 휘트니는 담담한 어조에서 벗어나 보다 단호하게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예를 들어 ‘악어의 눈물’ 같이 위험한 남자들의 간계로부터 자신들의 마음과 명예를 지킬 것을 여러 미혼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현란하게 치장된 말을 조심하라,
달콤한 아침의 말을 조심하라.
사이렌들은 해코지만 하려한다,
그들의 유쾌한 노래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악어의 눈물을 사용한다,
그들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리고 항상 울 수 없을 때에는
술책으로 뺨을 적신다.

Beware of fair and painted talk,
beware of flattering tongues:
The Mermaids do pretend no good
for all their pleasant songs.

Some use the tears of crocodiles,
contrary to their heart:
And if they cannot always weep,
they wet their cheeks by art. (13-20)

이 시가 더욱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시인 자신이 겪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슈라이너(Louise Schleiner)에 따르면 휘트니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바로 자신의 파경 때문이라고 한다.

파혼이 이 시를 쓰게 된 휘트니의 동기였다는 사실이 제기되어 왔었다. 가족에 [이미] 4명의 딸들이 있고 이사벨라의 결혼 지참금은 약속된 것보다 아마도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그녀의 약혼자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Schleiner 7)

휘트니의 생생한 증언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여성인물들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화려한 한탄이나 찬사로 일관하는 남성 화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위선적인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독자의 마음에 와 닿는다. “남성작가에 의해 주도된 페트라르크 풍 사랑시의 지배적인 문화 형태에서 돋보이는 애처로운 분위기에서 멀리 벗어나, 휘트니 시에서의 여성화자는 번갈아 익살맞고, 지분거리고, 회의적이다.” (Clare 12).

왜 당신들은 그러한 속임수를 지니고 있지요?
 왜 그러한 교활한 계략들일까요?
 이것들 보다 떨어지는 술책들도 쉽사리
 우리 여자들의 영혼을 속일 거예요.

그만 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할 터이니, 우리 스스로
 이 위장된 거짓을 조심해야겠군요.

처음부터 남자를 믿지 말고
 여러 번 잘 시험하세요;
 모든 처녀들이 자기들 가슴 속에
 이 말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Why have ye such deceit in store?
 have you such crafty wile?
 Less craft than this, God knows, would soon
 us simple souls beguile.

And will ye not leave off? but still
 delude us in this wise?
 Sith it is so, we trust we shall
 take heed to fained lies.

Trust not a man at the first sight
 but try him well before:
 I wish all maids within their breasts
 to keep this thing in store. (25-36)

남자를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이 제안은 사랑에 있어서 휘트니 자신과 같은 불행한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란한 수사와 슬픔의 위선으로 가득한 당시 남자시인들에 의해 주도된 사랑 시의 음험하고 위선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남성들의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유혹과 배신을 스스로의 생생한 경험에 비추어 시로 폭로한 점은 중세 이후 남성 시인들에 의해 주도된 궁정식 사랑 시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동시에 남성들의 일방적인 ‘사랑 놀음’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부각된다.

초대교회의 저명한 라틴교부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Carthage)의 터툴리안(Tertullian)은 “말과 함께 의복이 들어왔다 (With the word the garment entered)” (“On the Pallium,” Ch. III)라고 말함으로써 언어(language)란 장식으로 감싸 있어서 본질적으로 사악한 포장이라는 것을 암시 하고 있다 (Bloch 14). 터툴리안은 화려한 복장과 치장에 가려진 여성들에게서 이브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난한다.

너희들은 모르느냐, 각자가 또 하나의 이브인 것을? . . . 너희들은 악마의 문이요, 금지된 나무를 해제한 자들이요, 신의 법을 저버린 자들이요, 악마가 충분히 용감하지 못해 공격할 수 없는 그를 설득한 바로 그녀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미지인 인간을 그렇게 쉽게 파괴하였다. 너희들의 저버림—즉, 죽음—으로 인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어야만 했었다. 그리고서도 너의 피부 위 전체를 치장하려 하느냐? (“On the Apparel of Women,” Chapter 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악마의 문이요 장본인인 이브의 후예들이 화려한 치장을 함으로써 겸손과 정숙함을 버리고 이브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유희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터툴리안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화려한 치장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말 그대로 소네트 등 궁정식 사랑 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거짓과 위선을 치장하여 미화시킨 궁정식 사랑 시는 안드레아스가 강조하듯이 여성들을 유희하기 위한 화려한 언술을 자랑하는 궁정식 사랑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능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마음이 일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인에게 있어서 정교한 대사는 보통 사랑의 화살이 날아가게 하고 화자의 아주 뛰어난 성격에 회의적인 추정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Andreas 35)

이렇듯이 유창한 언변은 화자의 인격을 호의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궁정식 사랑의 연인에게 있어서 아주 유효한 수단이며, 훌륭한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능한 시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궁정식 사랑은 . . . 특히 언변의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연인들이 시인일 뿐만 아니라 예의, 겸손, 그리고 사랑의 종교 등 연인의 주요 특성들이 언변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Benson 243)

벤슨(Larry D. Benson)이 언급하듯이 귀부인에게 사랑을 호소할 때, 능숙한 시인의 것과 같은 화려한 언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14세기에는 비열한

불한당들도 귀족의 사회적 지휘를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진정한 연인의 언술을 모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Benson 246).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이버 연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크나큰 상처와 고통에 시달리는 젊은 처녀들의 비애를 방지하기 위해 크리스틴(Christine de Pisan)이나 뚜르 랑드리 기사(the Knight of la Tour Landry)의 부인과 같이 자녀를 둔 중세의 어머니들이 화려한 궁정식 사랑의 언술에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뚜르 랑드리 지오프리같은 간간한 사람들이나 윌리엄 골드 같은 불한당들이 쉽사리 궁정식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궁정식 사랑의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사랑의 화술과 같은 고상한 기술이 영리한 불한당들에 의해 남용될 정도로 모두 개방되었다. 즉 패블리오에 나오는 영리한 악당들인 대학생/수사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레이디들에게 궁정식 사랑의 화술이 책략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궁정식 사랑에 대한 가장 효력이 있는 공격이 크리스틴이나 뚜르 랑드리 기사의 부인과 같은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서 나오는 이유이다. (Benson 248)

같은 맥락에서 그 자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휘트니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화려한 화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상대방 남자를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라고 처녀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Beware of fair and painted talk, / beware of flattering tongues”).

궁정식 사랑 전통에 기초한 화려한 화술과 비유법, 그리고 시적 기교 등에 대한, 특히 소네트 전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17세기 형이상학과 종교시인인 허버트(George Herbert)의 “Jordan (I)”에도 잘 드러나 있다.

누가 말하는가, 오직 허구와 가발만이
 시가 된다고? 아름다움에는 진리가 없는가?
 모든 훌륭한 건축물이 나선형 계단에 있는가?
 훌륭한 시구로 인정될 수 없는가, 진짜 왕의 의자가

아닌 가짜 왕의 의자에 예를 표하지 않는 한?

시가 아니던가, 마법에 걸린 숲과
 갑작스러운 정자가 조악한 시구를 가려주지 않는 한?
 팔팔 흐르는 개울이 한 연인의 사랑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가?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하는가, 판독하고 예언하는 동안에,
 [참 진리에서] 두 단계 떨어져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Who says that fictions only and false hair
 Become a verse? Is there no truth in beauty?
 Is all good structure in a winding stair?
 May no lines pass, except they do their duty
 Not to a true, but painted chair?

Is it no verse, except enchanted groves
 And sudden arbors shadow coarse-spun lines?
 Must purling streams refresh a lover's loves?
 Must all be veiled, while he that reads, divines,
 Catching the sense at two removes? (1-10)

이 시는 페트라르크 풍 시를 비판하는 시론으로서 화려하고 복잡한 수사와 비유, 그리고 기교만이 좋은 시를 만드느냐며 ‘현란함(complexity)’을 비난하는 동시에 ‘단순함(simplicity)’을 찬양하고 있다. “오직 허구와 가발만이 시가 된다고 누가 말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시의 화자는 의복과 장신구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외양을 가리듯이 말이란 화려함으로 진실을 숨기는 치장이라고 주장하는 터툴리안처럼 비록 소박하지만 자연스러운 시와 그 시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허구와 화려함으로 가득한 페트라르크 풍 연가를 가장 지독하게 풍자하고 있는 여류 시인은 바로 아프라 벤(Aphra Behn)이다. 남성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삶의 길을 걸었던 아프라 벤은 “방탕자(The Libertine)”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여 수많은 여성들을 순수한 사랑의 이름으로 농락한 한

연인의 독백을 남성 화자의 관점에서 담고 있다.

수많은 사랑의 순교자들을 만들어,
모두가 나의 욕망에 희생되게 하였으며,
저항할 수 없는 정염 속에 번민하는
수많은 미인들을 나는 배신하였다.
길들지 않은 가슴을 손에 쥐어
야생의 방황하는 생각을 고정시켰다.

나는 결코 헛되이 사랑의 맹세나 한숨을 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비록 거짓이지만,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미인들은 남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만족해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어졌다.
비록 나는 사랑의 상처나 그 고통에 대해 말했지만,
사랑의 쾌락만이 나의 가슴을 건드렸다.

오직 사랑의 영광과 전리품만을
웃으면서 나는 항상 챙겼다.
고통과 노고 없는 승리만을,
지옥이 없는 천국의 기쁨만을.
그렇게 닥치는 대로 배회하며
사랑을 보채는 바보들을 경멸한다.

A thousand martyrs I have made,
All sacrificed to my desire,
A thousand beauties have betray'd
That languish in resistless fire:
The untamed heart to hand I brought,
And fix'd the wild and wand'ring thought.

I never vow'd nor sigh'd in vain,
But both, tho' false, were well received;

The fair are pleased to give us pain,
 And what they wish is soon believed:
 And tho' I talk'd of wounds and smart,
 Love's pleasures only touch'd my heart.

Alone the glory and the spoil
 I always laughing bore away;
 The triumphs without pain or toil,
 Without the hell the heaven of joy;
 And while I thus at random rove
 Despise the fools that whine for love.

거짓으로 수많은 여자들을 능욕한 한 난봉꾼의 고백을 담은 이 시는 궁정식 사랑을 풍자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귀부인의 무자비함과 경멸로 인한 고통을 절절히 호소하는 남성 화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검은 의도를 날날이 폭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랑을 쉽사리 받아주지 않는 ‘냉혹한(cruel)’ 귀부인으로 인한 슬픔과 한탄, 사랑의 고통과 맹세는 단지 생물학적 욕구만을 채우려는 “악어의 눈물”이었음을 보여준다. “미인들은 남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만족해하고 /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어졌다”는 말을 통해 ‘냉혹한 레이디’의 그 서슬 퍼런 권위도 남자들에 의해 조작된 허구였음이 드러난다. 결국 시 속에서 칭송받던 여성들은 화려한 말의 향연 속에 포장된 남자들의 검은 색욕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시는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시인들에 의해 주도된 전형적인 궁정식 사랑 연가의 전통에서 보았을 때, 시 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레이디’는 주체인 남성 화자의 욕망의 대상에 불과했음이, 비록 아주 소수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 여류 시인들의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상호 작용의 과정 속에 그 한 축인 여성들이 전통적인 반 여성주의와 결합된, 소위 “성적 응시(male gaze)”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과정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남자들의 일방적인 여성관과 여성의 객체화-주변화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속되는 궁정식 사랑 연가 전통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 남성 시인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에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의미와 이분법적인 마리아/이브 이미지는 뿌리 깊은 서구 사회의 여성혐오주의와 맞물려 상호 간 상승작용으로 그 정도를 더하게 됨으로써 시수(Hélène Cixous)는 남성작가에 의한 모든 글(writing)은 “중잡을 수 없는 허구의 마력(the mystifying charms of fiction)”으로 여성을 영원히 억압하고 있는 장소(locus)라고 극단적으로 정의를 내리게끔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어: 궁정식 사랑, 사랑시, 소네트, 성적 대상, 유혹의 언어

Works Cited

- Andreas Capellanus. *The Art of Courtly Love*. Trans. John Jay Parry. New York: Columbia UP, 1990.
- Bear, Risa S. and Micah Bear, “Introduction.” *From Pamphilia to Amphilanthus*. *Renascence Editions*. <http://darkwing.uoregon.edu/~rbear/mary.html>
- Benson, Larry D. “Courtly Love and Chivalry in the Later Middle Ages.” *Fifteenth-Century Studies: Recent Essays*. Ed. Robert F. Yeager. Hamden, CT: Archon, 1984. 237-257.
- Bloch, R. Howard. “Medieval Misogyny.” *Misogyny, Misandry, and Misanthropy*. Ed. R. Howard Bloch and Frances Ferguson.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 of California P, 1989. 1-24.

- Clare, Janet. "Women's Writing in the Renaissance and Reformation."
<http://www.hull.ac.uk/renforum/v1no1/clare.htm>
- Daniel, Samuel. *Delia* VI: "Fair is my love, and cruel as she's fair."
Representative Poetry Online. <http://rpo.library.utoronto.ca/poet/87.html>
- Dante Alighieri. "My Lady." Trans. D. G. Rossetti. *Poetry Archive*.
http://www.poetry-archive.com/a/my_lady_carries_love_within_her_eyes.html
- Denomy, Alexander. *The Heresy of Courtly Love*. New York: D. X. McMullen,
 1947.
- Lewis, C. S. *The 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 Oxford:
 Oxford UP, 1936.
- Sappho. *Sappho (c.600 BCE)*. <http://home.infionline.net/~ddisse/sappho.html>
- Schleiner, Louise. *Tudor and Stuart Women Writers*. Bloomington: Indiana UP,
 1994.
- Tertullian. "On the Pallium." *Early Christian Writings*.
<http://www.earlychristianwritings.com/text/tertullian26.html>
- Tertullian, *On the Apparel of Women*. *Early Christian Writings*. Trans. Rev. S.
 Thelwall <http://www.earlychristianwritings.com/text/tertullian27.html>
- Valency, Maurice. *In Praise of Love: An Introduction to the Love Poetry of the
 Renaissance*. New York: Macmillan, 1961.
- Waller, Gary F. "'Watch, Gaze, and Marke': The Poetry of Mary Wroth." *The
 Sidney Family Romance: Mary Wroth, William Herbert, and the Early
 Modern Construction of Gender*. Wayne State UP, 1993. 190-219.
- Whitney, Isabella. "Selected Poetry of Isabella Whitney." *Representative Poetry
 Online*. <http://rpo.library.utoronto.ca/poet/447.html>
- Wroth, Lady Mary. *Selected Poems of Lady Mary Wroth*.
<http://www.usask.ca/english/phoenix/wrothpoems1.htm>

Courtly Love Poetry: Language for Seduction

Abstract

Yoon-hee Park

Courtly Love is a forbidden affair usually between a noble bachelor and a married lady. That is why the relationship is aristocratic, secret, platonic or adulterous. However, though illicit, in courtly love a woman, as an ennobling spiritual and moral force, can exert a favorable influence on men, a civilizing effect on knightly behavior. In essence, courtly love is a contradictory experience between sexual desire and spiritual fulfillment. Nevertheless, many readers are suspicious of the motives because courtly love is a product of medieval Europe that is characterized by its misogyny.

"With the word the garment entered," Tertullian declares, implying that language is a kind of decorative covering like flamboyant dress. Medieval and Renaissance courtly love poems, written mostly by male poets, present a uniform situation in which a forlorn lover is desperately trying to woo his cruel but idolized mistress. However, poems written by women poets reveal that such tears and sighs are nothing but crocodile tears. Isabella Whitney's dejected heroine warns, "Beware of fair and painted talk, / beware of flattering tongues"; Aphra Behn's libertine confesses, "I never vow'd nor sigh'd in vain, / But both, tho' false, were well received; / The fair are pleased to give us pain, / And what they wish is soon believed: / And tho' I talk'd of wounds and smart, / Love's pleasures only touch'd my heart."

Key Words

courtly love, love poetry, sonnet, sexual object, language for seduction